

	베트남(하노이) 해외사무소 해외동향보고서	작성팀	마케팅지원팀
		담당자	정 걸 기 소 장
		일 시	2024. 11.

CEPA Insight

- 온라인쇼핑, 9월까지 90억달러 전년비 38% ↑
- IMF,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6.1% 유지
- 베트남, 대미 교역액 1,000억달러 돌파
- '동남아판 생겐조약', 6개국 공동비자 검토
- '전기차' 2030년까지 전체의 30% 목표

■ 온라인쇼핑에 월 10억달러...9월까지 90억달러 전년비 38% ↑

- 올들어 베트남인이 온라인쇼핑에 지출한 돈이 월평균 10억달러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 전자상거래 데이터분석업체 메트릭(Metric)이 최근 내놓은 '3분기 온라인 소매시장 보고서'에 따르면 9월까지 베트남 5대 전자상거래 플랫폼의 총상품거래액(GMV)은 전년동기대비 37.7% 늘어난 227조7,000억동(89억 6,520만달러)을 기록. 월평균 GMV이 25조3,000억동(9억9610만달러).
- 이중 3분기 GMV은 84조7500억동(33억3,680만달러)으로 전분기 대비 18.2% 증가하며 베트남 전자상거래시장의 잠재력을 다시 한번 증명.
- 식지 않았던 라이브커머스 열풍과 저가 상품 판매 호조를 3분기 시장 성장의 주요 요인으로 봄.
- 마케팅업체 비나미디어(VeenaMedia)와 기술플랫폼 스틱클러(Stickler) 통계에 따르면, 틱톡숍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100대 크리에이터

(틱톡커)는 지난 10일 단 하루동안 라이브커머스 누적 조회수 1,170만여회, 유니크뷰어(UV)수 580만여명을 기록.

- 이 밖에도 3분기 상품단가 20만동(8달러) 이하의 제품이 전체매출의 절반을 넘기는 등 주로 저렴한 상품의 판매량이 큰 폭으로 늘어나는 모습. 3분기 전체 GMV중 저가상품 비중은 전년동기대비 9%p 증가.
- 이에대해 보고서는 "저가상품 판매량 급증은 경기 불확실성이 여전한 가운데 소비자들의 쇼핑습관이 '똑똑한 소비' 추세로 돌아서고 있음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풀이.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71>

■ IMF, 베트남 경제성장률 전망 6.1% 유지...내년은 0.4%p 하향조정

- IMF는 22일(현지시간) 내놓은 '10월 세계 경제전망' 보고서를 통해 올해 베트남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6.1%로 유지.
- 내년 베트남의 소비자물가는 전년대비 3.5%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실업률은 올해 2.1%에서 2%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
- 한편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을 3.2%로 전망하며 중기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추세인 3.1%에 그칠 것으로 전망.
- 이에 대해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Pierre-Olivier Gourinchas) IMF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세계경제는 실업률 급증없이 인플레이션이 둔화되면서 연착륙을 향해가고 있다."고 평가한 뒤 "다만 관세인상을 비롯한 무역보복 조치에 따른 잠재적 위험이 여전히며 이는 2025년 더욱 심화할 수 있다."고 경고.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56>

■ 베트남, 대미 교역액 1000억달러 돌파

- 10월 18일 공상부에 따르면 올들어 베트남의 대미 교역액은 1003억달러를 기록.
- 이 가운데 수출은 전년동기대비 27.4% 늘어난 894억달러로 전체 수출의 29.8%를 차지, 최대 수출시장 지위를 유지. 수입액은 6.2% 증가한 109억달러를 기록.
- 이에 대해 공상부는 "미국의 내수 수요 증가에 따라 기업들의 교역규모 확대 조짐이 관측되고 있다"며 "올들어 미국에서는 목제품과 해산물, 섬유 수요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
- 미국주재 베트남 무역사무소는 이같은 교역 호조세의 주된 요인으로 ▲양국관계 개선, 특히 지난해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격상 ▲베트남 상품 품질개선과 트렌드 적응, 가격 경쟁력 등에 따른 선호도 증가 등 크게 2가지.
- 무역사무소는 "공급망 및 투자처 다각화 등에 따라 베트남 기업의 역량이 향상되면서 미국을 비롯해 베트남 상품의 판로가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며 "현재 미국내 수요가 증가하고, 재고가 감소하고 있어 앞으로도 미국 수출은 증가세를 유지할 전망".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8997>

■ '동남아판 쉥겐조약', 6개국 공동비자 검토

- 태국은 올초 동남아 관광산업 발전 촉진을 목표로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 등 5개국에 공동비자제도 도입을 제안.
- 이는 참여국 중 1개국에서 비자를 발급받으면 나머지 5개국에서 통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동남아판 쉥겐조약'으로 불림.
- "현재 동남아 관광산업은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의 정점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 "지금은 동남아 각국이 관광산업이라는 공동목표 아래 상호협력 해야할 시기"

- 베트남 관광업계는 이러한 공동비자가 역내국에 비해 경직된 비자제도의 영향을 상쇄해 외국인 관광객 추가 유치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055>

■ '전기차' 2030년까지 전체의 30% 목표

- 베트남이 환경오염 저감과 에너지 절약을 위해 2030년까지 전기차와 전기 오토바이의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각각 30%, 22% 수준으로 끌어올릴 계획.
- 교통운송부가 최근 내놓은 '교통부문 온실가스 저감계획'에 따르면 2030년까지 베트남에서 판매되는 모든 오토바이와 신차(9인승 이하 승용차, 수입차 포함)는 배기량별 연비 기준을 충족해야 함.
- 정부는 이러한 연비기준을 충족하는 차량의 비율을 2027년까지 30%, 2028년 50%, 2029년 75%, 2030년 최종 100%로 끌어올린다는 계획.
- 교통운송부는 "앞으로도 전기차 및 전기오토바이에 대한 기준을 개정·보완하고, 전기차 충전소 설치 및 확대 방안과 휴게소내 충전소 인프라 설치 등에 대한 규제도 가계와 기업의 수요에 맞춰 적용해나갈 계획".
- 교통운송부는 "이번 대책은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목표로 한 것으로, 일반 시나리오와 비교해 배출량이 5.9%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 정부에 따르면 이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량은 2025년까지 340만톤, 2030년까지 1061만톤이 될 것으로 추산. 2021~2030년 10년간 예상 저감량은 4562만톤에 이름.
- 한편, 당국에 따르면 현재 차량 증가율을 감안할 때,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평균 6~7% 증가해 2030년이면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90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

관련기사 링크: <https://www.insidevina.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44>